

일시 : 2015. 11. 24 (화) 7:30~9: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연사 : 윤평중 한신대 교수

<진행순서>

시간	내용
07:00 ~ 7:30	등록 및 접수
07:30 ~ 07:40	개회 및 내빈소개
07:40 ~ 07:50	인사말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07:50 ~ 08:00	축사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
08:00 ~ 08:40	주제발표
08:40 ~ 08:50	플로어 질의응답
08:50 ~ 09:00	마무리
09:00	기념촬영 및 폐회

< 주제발표자 약력 >

윤평중



現職

한신대학교 교수

學歷

고려대학교 철학	학사
Southern Illinois Univ. -Carbondale	석사
Southern Illinois Univ. -Carbondale 철학	박사

經歷

2013. 03 한신대학교 학술원 원장
사회통합위원회 본의원
한신대학교 대학원 원장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한신대학교 학술원 인문학연구소 소장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철학과 객원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역사학과 연구학자

著書

2011 공정과 정의사회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적 모색)
2009 급진자유주의 정치철학
2008 지식인과 실천, 극단의 시대에 중심잡기
2004 윤평중 사회평론집 - 이성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2001 논쟁과 담론
1998 담론이론의 사회철학
1997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 합리성과 사회비판
1992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과 포스트마르크스주의
1990 푸코와 하버마스를 넘어서 (현대사상신서 2)

< 주제 발표문 >

21세기 국가대전략을 생각하다

尹平重(한신대 철학과) 2015.11.24.

1.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난장이들

~ 눈먼 거인 오리온(Orion), 케달리온(Cedalion)을 어깨 위에 태워 태양신에게 가다
~ 뉴톤: '나는 거인의 어깨에 선 난장이'
~ YS 서거. 사라져버린 정치적 거인들의 시대. 이승만, 박정희, DJ
~ 샐러리맨이 되어버린 현대 한국정치인들. 난장이들의 도토리 키 재기가 된 제도정치
~ '정권심판? 정치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대전략의 부재로 인한 정치왜소화가 문제

2. 한반도 역사반복론

~ '舊韓末 비슷한 국가존망의 위기가 21세기에 반복되고 있다'는 가설
~ 한반도 地政學을 앞세운 우국충정의 산물. 정치권에 최대 책임이 있음.
~ 국력의 상대성 테제. 4强의 비대칭적 힘. 핵보유국(?) 북한까지 우리를 압박
~ 아베정권의 해석개헌을 통한 군사국가화

한반도 역사반복론 例示

~ 동아시아 Great Game~ 동아시아 국제정치주체가 모두 관여한 4차에 걸친 국제전쟁
~ 20세기에 7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二國통일 정치학'의 배경

제1차 동아시아 Great Game(古代)
~ 서기 7세기까지 700년동안 진행된 '三國통일 정치학'
~ 당 태종 이세민(599~649)이 돌궐 위협 제거한 640년대 이후 한반도 상황 본격 개입
~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사절들에게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 데쟈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격 때 '유관국들은 자제하라'는 중국
~ 수·당은 고구려가 계속 조공했음에도 제국을 위협한다고 보아 고구려 멸망시킴.
~ 고구려, 백제, 신라의 길~ 신라의 國家大戰略의 승리(三韓一統)
~ 중화제국을 정확히 읽고 결정적 순간에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하다

제2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中世)~ 제국 중국과 제국 일본의 충돌
~ 명·청, 도요토미 히데요시·도쿠가와 이에야스, 조선
~ 한반도 남북분단, 반보 직전까지 가다
제3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近代)~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한반도 전역의 被식민화
제4차 동아시아 그레이트 게임(現代)~ 미중일러와 남북한, 유엔군~ 6·25 전쟁
~ 남북분단 현실화. 현재진행형.

한반도 역사반복론의 한계
~ 산업혁명과 민주혁명 성취해 中强國이 된 대한민국의 주체적 역량 무시
~ 한반도 地經學 무시, 全지구적 자본주의 動學과의 연계를 무시함
~ 지구경제에의 편입~ 박정희 시대~ 한국인의 사유체계에 '지구적 세계'가 처음으로 등장하다
~ 하멜표류기와 연암의 열하일기가 입증하는 조선인의 자폐적 세계관
~ 국제법과 UN, 유엔군의 존재 경시
~ 대륙문명(선두주자는 과거엔 소련, 오늘은 중국)과 全지구적 헤게모니를 다투는 해양문명의 대표자인 미국의 영향력 제외한 논의
~ 일본의 보통국가화 과대평가와 중국의 한반도 규정력 과소평가는 한 동전의 양면.

3. 帝國과 小國意識

~ 제국과 제국주의는 다르다. 제국주의의 시대는 갔으나 제국은 엄존함.
~ 제국은 큰 국가이상의 존재로서 질서의 창조자이자 보증인(군사력+경제력+soft power)
~ 로마제국, 대영제국, 오스만제국, 20세기의 소련제국, 오늘의 미국제국과 중국제국 등.
~ 제국은 경쟁제국의 浮上을 차단함. 2차대전시 美蘇는 나치와 일본의 제국화를 패퇴시킴.
~ 한반도 주변 국가는 한반도만 빼고 한 때 모두 제국
~ 한반도 반만년 역사(written history 2000년)와 제국의식의 부재. 소국의식의 재생산구조
~ 깊이 뿌리내린 소국의식이 미국과 중국을 향해 표출됨.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사례.
~ 주한 중국대사와 주중 중국대사의 格, 주미대사
~ 중세 일본의 제국의식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중심 3국 세계관(일본열도, 중국, 인도)
~ 임진왜란의 재해석~ 한반도는 언제나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요충이었다? 바다 건너 30만 대군이 進攻할 수 있는 강국 일본의 등장 이후 비로소 한반도가 전략적 중요성 획득
~ 20세기 일본의 제국의식~ 대동아공영권은 3국세계관의 현대적 변용. 征韓論이 그 발판.
~ 제국 일본의 시도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제1제국 미국의 그늘 아래서는 불가능

4. 제국 중국은 제국 미국을 대체할 것인가?

~ 그렇다면 중국은? 중국은 그 반만년 역사에서 거의 언제나 제국이었음. '종이호랑이' 淸末에도 세계 GDP 4분의 1 차지함. 21세기 미국과 비슷.
~ 21세기 중국 제국~ 中國夢과 一帶一路, 중국 內政의 문제
~ 미국이 쇠퇴하고 있지만 중국 군사력은 미국 군사력에 현저히 미달. 미국은 역사상 최대의 압도적 군사강국.
~ 경제력~ 미국 대학과 연구기관의 강점. 특허 숫자 등.
~ 팍스 시니카는 오기 어려움~ 법치주의와 책임정부의 결여, 소수민족, 민주화
~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의 차이. 法家와 로마법의 차이. 보편적 Soft Power의 부재

~ 동북공정에 이어 조선이 속국임을 주장하는 新淸史工程
~ 중원 대륙으로부터의 침공이 일본 열도에서의 침공보다 훨씬 많았음.
~ 조선조 선비들의 小中華라는 거대한 허위의식~ 중국과 우리를 동일시함. 중국을 本朝, 聖朝로 지칭. 면암 최익현의 殉死.
~ 현대 한국 (진보)지식계와 여론주도층의 親中의식(?)
~ 북한 급변시 중국의 運身은?~ 한국전쟁의 경험
~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붕괴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통일을 앞세우지 말라

5.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1세기 한국정치의 가능성: 난장이가 거인보다 더 멀리 더 잘 볼 수 있다. 난장이의 시각이 더 예민하거나 더 커서가 아니라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서 있기 때문.